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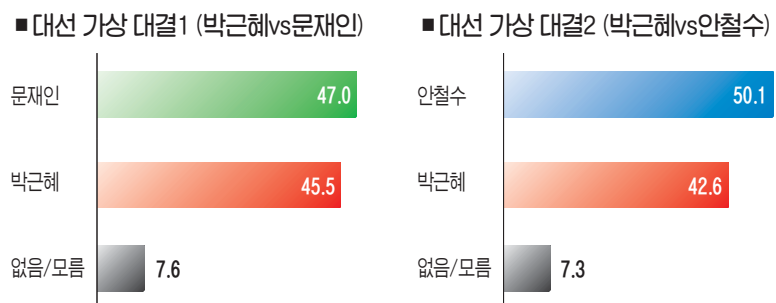
문재인 47% vs 박근혜 45.5% ... 안철수 50.1% vs 박근혜 42.6%

양자대결 구도

文, 서울·경기·호남 강세 ... 오차범위내 추월 安, 충청권까지 우세 ... 7.5%P차 크게 앞서

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범야권 후보(문재인·안철수)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범야권 후보들이 모두 앞섰다.

범야권 후보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오차범위(±1.5%포인트)를 벗어나 7.5%포인트나 앞섰고,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.



오차범위 내인 1.5%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

문 후보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민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, 전북 등 7개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고, 박 후보는 수도권과 호남,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문 후보를 앞섰다.

문 후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(78.4%)와 전남(76.0%), 전북(81.3%)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며, 박 후보는 고양인 대구(71.7%)와 경북(70.8%)에서 70%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, 부산과 경남에서도 각각 59.0%, 56.5%의 지지를 얻었다. 박 후보는 또 강원에서 의외로 68.3%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유권자 숫자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는 문 후보가 각각 50.1%와 51.1%의 지지율을 얻어, 42.4%와 38.0%의 지지율을 보인 박 후보를 앞섰다.

◇박근혜 vs 안철수=박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50.1%의 지지율을 얻어 42.6%를 얻은 박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 안 후보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·충남, 호남과 제주 등 한반도 서쪽에서 우세를 보였고, 박 후보는 강원과 충북, 대구·경북, 부산·경남 등 동쪽에서 우세를 보여 동·서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.

안 후보는 광주(69.8%)와 전남(74.7%), 전북(68.0%)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며, 서울과 경기에서도 각각 55.1%, 53.3%를 기록해 박 후보에 비해 15%포인트 이상 앞섰다.

반면, 박 후보는 대구(58.1%)와 경북(60.4%), 부산(55.0%), 경남(55.3%)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.

안 후보는 특히 문재인 후보와 박 후보의 가상대결에서 문 후보가 패했던 대전과 충남에서도 박 후보를 눌러 충청지역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고, 대구와 경북에서도 문 후보와 달리 30%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이며, 박 후보의 지지율을 50%대로 끌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.

광주·전남 민심

광주는 安·전남은 文 지역여론 미묘한 차이

단일화 방식, 광주 "양자합의 담판" 전남 "국민경선+여론"

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광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,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광주와 전남지역 민심이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.

우선 광주에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44.8%로, 문 후보(35.3%)에 비해 9.5%포인트 앞서서 것으로 조사됐다.

반면, 전남에서는 문 후보가 42.0%의 지지율로 안 후보(41.3%)에 비해 0.7% 포인트 차이의 박빙 우세를 보였다.

광주에서는 안 후보와 문 후보가 각각 44.8%로 동률을 이뤘으나 전남에서는 문 후보가 44.7%를 기록, 41.3%를 기록한 안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따돌렸다.

야권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광주에서는 "양자의 합의 담판"이 38.8%로 가장 높은 반면, 전남에서는 "국민경선 + 여론조사" 방식이 28%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.

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.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

은 전남이 광주보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애정이 더 높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우세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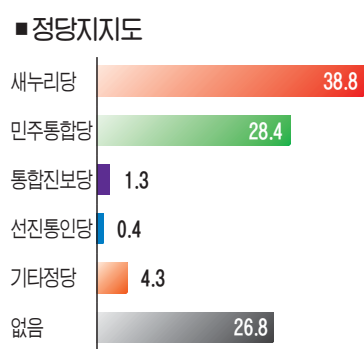
특히,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문 후보의 '약진'이다.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, 호남 지역에서는 안 후보가 문 후보에 비해 크게 우세했으나 이번에는 문 후보가 안 후보를 따라잡거나 추월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.

호남 민심은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국면에 결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추석 이후에도 이 같은 지역 민심의 추이가 이어질 것이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정당 지지율

새누리, 통합민주보다 10%P 이상 높아

38.8% 대 28.4%
무당층이 26.8%



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통합당을 10%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특히 민주통합당은 텃밭인 광주와 전남, 전북에서도 과거 보다 지지도가 5~6%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정당지지도 조사결과 새누리당은 38.8%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으며, 28.4%의 지지율에 그친 민주통합당을 10.4%포인트 앞섰다. 이어 통합진보당이 1.3%, 선진통일당이 0.4%의 지지도를 얻었다.

'지지정당이 없다'고 답한 응답자가 26.8%에 달해, 여전히 무당층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.

새누리당은 텃밭인 대구(52.0%)와 경북(55.2%), 경남(52.7%) 등에서 50% 이상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었으며, 이어 부산(48.9%), 충북(48.4%), 강원(47.5%), 충남(42.3%), 서울(40.1%) 등에서도 40% 이상의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.

민주통합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(63.8%), 전남(59.3%), 전북(54.7%) 등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며, 강원(35.0%), 충북(32.0%), 충남(35.7%), 제주(30.4%) 등에서 30%대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

특히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광주일보가 조사한 광주·전남지역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67%의 지지도를 보였지만,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광주에서는 4%포인트, 전남에서는 8%포인트 가량이 떨어졌다. 전북에서도 50%대의 지지율에 그쳤다.

광주와 전남지역에서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각각 8.6%, 11.3%에 그쳤다.

통합진보당은 지난 4·11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으로 시작돼 당원 무더기 탈당, 분당 사태에 이르면서 지지도가 급락했다. 광주(4.3%)와 전남(4.0%), 전북(4.0%), 대전(4.2%) 등 4개 지역에서 4%대 지지율을 보인 반면 부산과 울산, 강원, 경북 지역 응답자 중 지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.

통합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에서 얻었던 비례대표 정당지지도 18.6%와 14.8%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며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.

4·11 총선을 전후해 실시됐던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11.6%로 민주통합당에 이어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당의 대안 정당으로 꼽혔지만, 이번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보다도 더 떨어졌다.

한편,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006명 중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'보수'라는 응답자는 37.0%였으며, '중도'는 35.2%였다. '진보'라는 응답자는 27.7%였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후보별 극복 과제

박근혜, 아버지 박정희·역사 인식 문재인,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안철수, 정치경험 부족·조직 약해

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역사 인식이 꼽혔으며,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극복해야 할 현안 과제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조사됐다.

안철수 후보는 정치경험 부족이 가장 우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.

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극복해야 할 개인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.5%가 '박정희 전 대통령과 역사인식'을 꼽았다. 이는 지난 24일 박 후보가 5·16과 유신, 인혁

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변화된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에 부응하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'현재진행형'임을 말해 준다.

이어 박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▲소통 부재 이미지(20.6%) ▲측근 관련 논란(19.8%) ▲여성 후보(13.1%) 순으로 나타났다.

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.1%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.

국민 대다수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

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.

또한, 문 후보가 극복해야 할 개인적 과제로는 친노 이미지 21.9%, 정치경험 부족 20.7%, 권력이지 부족 10.8% 순으로 지적됐다.

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가장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단연 '정치경험 부족'이 우선으로 꼽혔다. 응답자의 43%가 정치경험 부족을 지적했다. 이어 정당 등 조직 미확보(18.6%), 국정경험 부족(15.4%), 후보 검증 미비(8.9%) 등이 안 후보의 극복 과제로 지적됐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풍성한 추석

우리의 마음만큼 풍성한 보름달을 바라보며 온가족 함께 모여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.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더욱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.

■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2차 • 원서접수 : 2012. 11. 12(월) ~ 16(금)	■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대학원 • 원서접수 : 2012. 11. 12(월) ~ 30(금)
■ 입학문의 · 학 부 : 062-605-1114 · 대학원 : 062-605-1115	

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
500-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